

브로네막 임플란트시스템의 심미적개념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보철과 부교수

조 성 암

전부무치악케이스의 심미적 고려

전부무치악케이스는 부분무치악케이스보다 어찌보면 치료하기가 보다 난점이 적다. 즉, 전부무치악케이스는 Peri-implantitis가 없다는 데에 이론이 거의 없다.

따라서 전부무치악케이스의 보철적 수복에 있어서 Oralhygiene의 필요성이란 연조직의 Control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종래의 케이스가 임플란트지대치의 금속색깔을 노출하여 왔는데 이런 종래적인 디자인보다 심미적으로 고려해줄 수 있는 설계가 다음의 케이스에서처럼 가능하다.

즉, 의치의 base를 보다 길게 하고, 아울러, 전부무치악케이스에서도 필요없는 금속의 노출을 막기 위하여 심미임플란트지대치(Estheticone)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림 163. 환자는 상악에 총의치를 장착하고 있었고, 하악에는 양측성 국소의치를 장착하고 있었다. 심한 만성치주염으로 치아주위 골조직의 파괴가 매우 심하였다. 직업은 외과의사로서 현존하는 국소의치에 심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으며 환자의 부모들도 총의치를 장착하고 있었다.

환자의 파노라마 사진상에는 하악에 발치를 하더라도 충분한 양의 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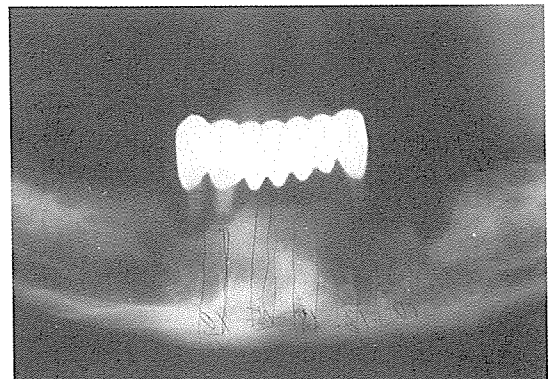


그림 164. 하악 양쪽 Mental foramen 사이에 브로네막임프란트를 13, 15, 18, 13, 10mm의 5개를 식립하였다.

그림 165. 18mm의 순측치조골의 일부흡수로 임프란트의 나사가 노출되었으나 이를 위한 별다른 처치는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림 166. 일차수술 이후 약 4개월이 지난 후에 2차수술(임프란트의 지대치를 연결하기 위한)을 하기 직전의 모습. 18mm의 설측에는 골이 붙어 있다.

그림 167. 이차수술후 Individual tray를 만들기 위한 진단용 모형의 모습.

그림 168. Individual tray의 지붕을 걷어 내어 인상용 Guide-Pin이 노출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169. 인상채득전 임프란트지대치와 임프란트의 연결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그림 170. 설측의 임프란트지대치와 임프란트의 경계부위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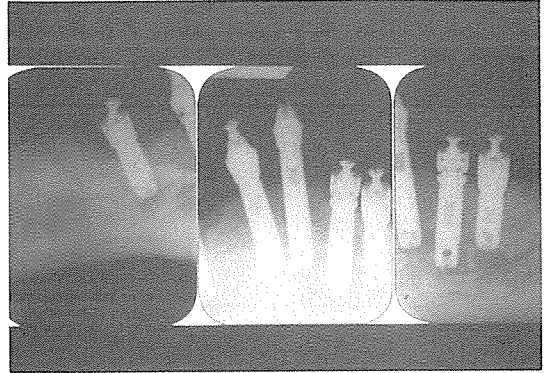


그림 164.



그림 165.



그림 1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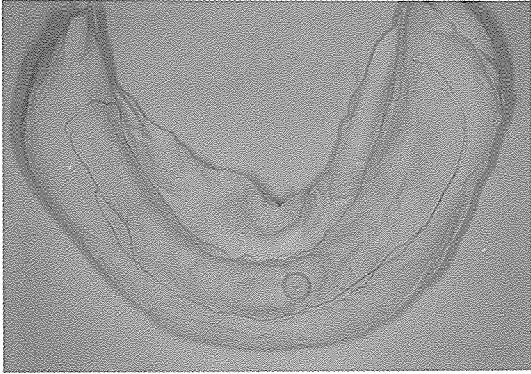


그림 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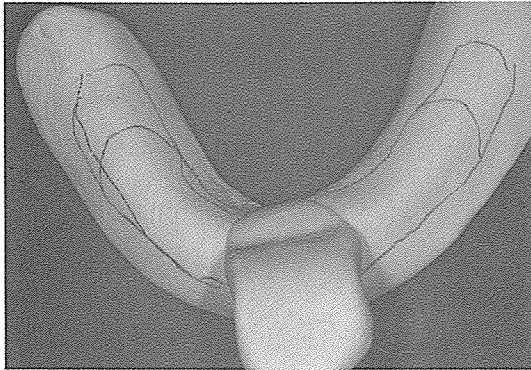


그림 168.



그림 1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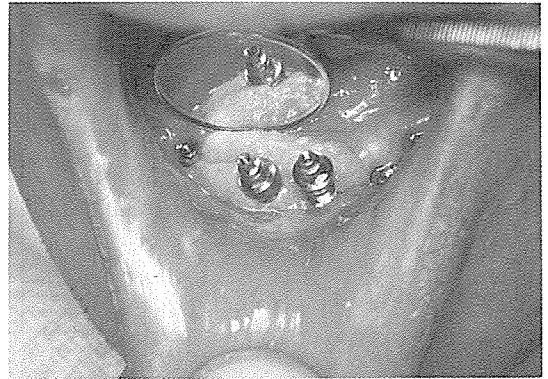


그림 170.

그림 171. Squared impression coping을 장착한 모습.
전치부위이므로 Guide pin을 쓰기 쉬우나 구치부는
상하악 사이의 공간이 부족하다면 Tapered impres-
sion coping을 사용한다.



그림 171.

그림 172. Impression plaster가 정확한 인상채득에 보다 좋
지만 undercut이 있는 경우에는 Polyether계통의
Impregum을 사용한다. 가이드핀을 Screw-Driver로
풀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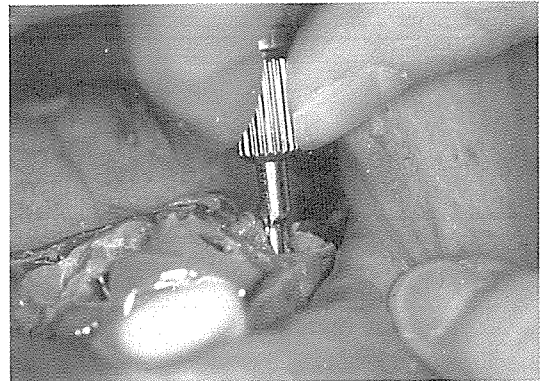


그림 172.

그림 173. Impression coping이 인상재 내에 있는 모습. 인상
채득시에 가급적이면 이들 임프레션 코핑의 위치가
움직이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임프레션 코핑에 가짜 임프란트지대치(기공용)를
꼽는다.(가이드핀을 사용하여) 그런 후 스톤을 부
어서 Master cast를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상,
하악간의 교합관계를 인기할 Jaw-relation recording
base를 만든다.

그림 174. Jaw-relation recording base는 하부에는 Acrylic-re-
sin을 이용하여 임프레션 코핑끼리를 연결하여 하
부의 튼튼한 뼈대를 만들고 그 위는 wax를 이용하여
상악과 하악의 상호관계를 정하는 Occlusion
Rim으로 사용한다.

그림 175. 환자구강내에 이 Jaw-relation recording base를 핀
으로 고정하여 상악과 하악의 수직적, 수평적 관
계를 총의치이론대로 결정한다.(Vertical dimension
and centric relation)

〈다음호에 계속〉



그림 1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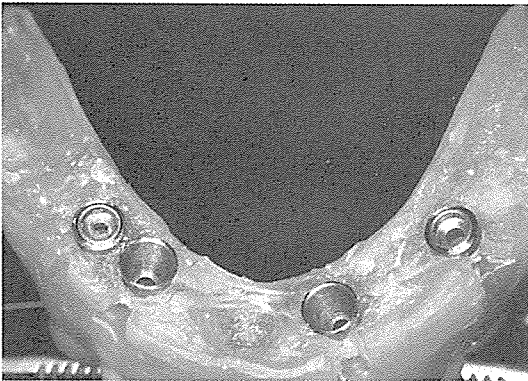


그림 1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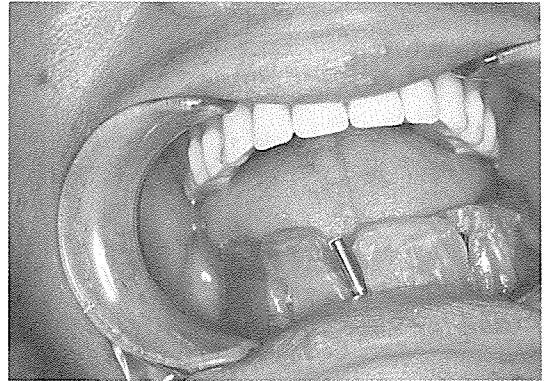


그림 175.